이번주 묵상

아래의 묵상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들었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 1페이지의 이번주 말씀 요약과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5-17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2.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부모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5번째 문단 참조)

3.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나 소망을 품게 된 말씀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에 2페이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삼성교회 연락처

+82 02-2293-4421

http://samsungch.or.kr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

나성교회 연락처

+1 562-690-7979

https://nasungchurch.net

information@nasungchurch.net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삼나소식

55호

삼성교회 나성교회

2025년 5월 18일 SAMSUNGCH.OR.KR 55 호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누가복음 18장 15-17절

날짜: 2025.5.4.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에서도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는 단순히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존재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매우 신비롭습니다. 부모가 되는 순간, 자녀를 먹이고 지키려는 본능이 자연스럽게 생기며, 연약하고 자기 밖에 모르던 여성도 아이를 안는 순간 밤새도록 돌보고 품는 깊은 모성애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죄와 사망으로 태어나 자랄수록 점점 어른과 같이 교만한 마음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를 어린아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른 되고 싶어 하는 자아를 점점 죽여가며 하늘 나라의 생명으로 천국 백성 다운 어린아이가 되게 하십니다.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지며 아이처럼 창조주 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간 부모들은 어떤 교훈이나 말씀을 들으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만지심을 바랐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이들을 예수께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 부모들 속에 생명으로 와 계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풍성함으로 채워질 때, 부모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품이 부모 자식 간의 신비스러운 관계를 통해 자식에게 전달되며 예수가 공급됩니다. 예수님의 교양, 훈계만이 사람을 올바른 인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 지식, 물질, 세상에 속한 것들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의 인격을 채울 수 없습니다. 참다운 인격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인격이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세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옛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흘러갈 때, 아이들은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가서 연합될 때, 그 생명의 풍성함이 흘러나와 아이들이 먹고 자라며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온전한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서 "초달을 차마 못 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감정에 따라 때려야 할 때 때리지 못하고, 때리지 말아야 할 때는 오히려 매질하는 왜곡된 교육은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참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 어머니로서 자녀를 올바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야 자녀들도 참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하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음에 넘기기만 하면, 내 영에 와 계신 주님이 혼으로 흘러나오셔서 자녀 교육뿐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 염려, 근심, 걱정에 싸여 참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며 오직 이 분의 말만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죽기만 하면 자식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떡이 되며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매일 십자가에 죽는 삶을 통해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귀한 전도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해당 설교의 전체 영상을 보기 위해 오른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교 회 후 원

우리은행
1005-602-532517
예수교대한웨슬레회삼성교회

중보기도

교회 공통 기도제목

- 삼성교회와 나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삼성교회와 나성교회 사역자들(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의 사역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 될 수 있도록
- 삼성교회와 나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포항 등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김옥경 집사(82세) –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현숙 집사(61세) –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귀에 통증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신자 집사 - 자녀들(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권오중 집사(47세) –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장현주 집사 – 신장 기능 저하(40% 정도)와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약을 먹을 때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신장 기능과 당뇨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한순희 집사 – 아들(곽민준/곽요한)에게 구원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송주석 형제(청년) – 목 디스크 탈출로 인한 척수증 때문에 경추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영희 자매(60세, 도봉구역) – 궤양성대장염으로 20년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신OO 집사 – 자녀(여고생)가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고발이 되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6월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녀와 집사님의 마음이 주님을 통하여 위로받고 치유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실명으로 기도 제목 올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담임 목사님의 건강회복과 쾌유를 위해서 교우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강준규 형제 (제 4,5남선교회) - 눈 망막 수술을 하였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홍경아 - 한국에서의 생활 중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풀리 자매 (제3여선교회) -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수영 장로(여호수아회) - 무릎 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심순근 권사 (모세회) - 영과 육이 건강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영자 집사 (모세회) -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양홍숙 권사 (모세회) - 신장질환과 심장이상의 합병증세로 요양원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최지민 자매 (제1여선교회) - 유방암과 림프 전이가 되어 치료하는 중에 면역력이 떨어져 위와 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한아림 자매(청년회) -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으며 강건케 되기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피터 송 집사 - 아들(폴 송)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직장도 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주 구역모임

- 본문: 창세기 4장 1-7절
- 해당 설교는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구역 모임 전 미리 설교를 듣고 모임에서 구역원들과 아래의 설교 요약을 다시 읽으며 은혜 받은 내용을 서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의 길과 종교인의 길

아벨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 전해진 진리, 즉 선악과 먹고 죄의 존재가 되어버린 결과는 죽음이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나 대신 다른 존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믿고 양의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내가 땀 흘린 노력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악과 먹고 생겨난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타락한 인간 삶의 전형적인 모습인 종교인의 길일뿐입니다.

가인이 간 종교의 길은 합리적이고 세상적으로 더 현명해 보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탄으로 말미암은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그 죽음에 동참 되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죄된 인간이 거룩해지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나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3. 구원 얻기 전에 죄 짓는 것과 구원 얻은 이후의 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 얻기 전에 짓는 모든 죄는 사람에게 영원한 사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 얻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 얻은 영은 주님이 계시기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혼과 몸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 얻은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혼으로 그 죄를 정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정죄를 받아들이게 되면 마귀는 우리를 율법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의 놀라운 감화 감동으로 죄 용서를 알게 되고 죄 용서로 인한 더 큰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혹시 은혜의 사실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구원하셨다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속이는 마귀의 말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은 영이 혼으로 흘러내려오는 것이며 성화입니다.

주간일정

- 전교인연합예배 있습니다.
- 제2여선교회 좌담회 있습니다.

삼나소식 모바일

https://samnanews.modoo.at